

제 2006 년도
석사학위(M.Div.) 청구논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십일조 이해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과
구약신학전공
최한모

최 한 모 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박 철 현

審查委員

전 성 민

김 성 옥

이 풍 인

웨스트민스터神學大學院大學校

논문 개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십일조 규정 중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규정을 중심으로 십일조의 규범성을 논한 다음 십일조 제도에 관하여 십일조는 규약율법이 신약 시대에 폐기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일조에 대하여 자유로워야 한다는 주장과 십일조 제도는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는바 필자는 십일조 옹호론의 입장에서 율법의 도덕법적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살아있으며 안식일의 원리처럼 십일조 규정도 영원한 도덕법적 규범성이 있음을 근거로 십일조 폐지론을 반박하였다.

결론적으로 십일조는 규범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며 청지기 의식의 표식이고, 축복 계시의 원리임을 말하였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십일조 사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을 하였다.

감사의 글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 해준 가족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5년 11월에

최한모

목 차

논문개요	i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ii
제 1 장 서론	2
제 1 절 문제제기	2
제 2 절 문제제기	3
제 2 장 모세오경에 나타난 십일조의 규범성	4
제 1 절 십일조의 규범적 성격	4
제 2 절 레위기 27:30-34의 규범성	4
제 3 절 민수기 18:20-32의 규범성	7
제 4 절 신명기 14:22-27, 14:28-29의 규범성	10
제 3 장 그 외 구약에 나타난 십일조	18
제 4 장 십일조 폐지론과 옹호론의 비교	22
제 1 절 십일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	22
제 2 절 십일조 폐지론에 대한 반박	23
제 5 장 결론	25
제 6 장 후기	27
참고문헌	29

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 제기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십일조와 현금을 세계 어느 나라의 신자들보다 열심히 드리고 있다. 특히 십일조는 개교회의 경제적인 자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교회의 선교활동에 기여한 것 사실이다. 캔델은 십일조가 교회성장의 원동력, 혹은 비밀이라는 점을 고백하고 있다.¹⁾ 이런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한국교회의 십일조 관행이 기독교의 복음을 배금주의와 그릇된 축복관의 윤법주의로 변질시켰다고 하며 기존의 십일조 옹호 신학은 유사기독교일뿐, 성경적 정통주의는 아니라는 견해 또한 자리매김 하고 있다.²⁾

십일조제도에 대한 이런 상반된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발전에 큰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있는바,

첫째, 십일조에 대한 규범성은 진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십일조 규정과 그 외 구약에 나타난 십일조 규정의 규범적, 명령적 성격을 규명해 보겠다.

둘째, 십일조 폐지론자들은 십일조제도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로 윤법과 함께 사라졌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초대교회 아래 십일조 관련 교회역사가 과연 폐지론자들의 편이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십일

1) R. T. Kendall, *십일조*, 송성진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1991), 69.

2) 성기문, “십일조 논쟁-십일조, 무엇이 문제인가?” (www.godislove.net) 2005.

조 유효성에 관하여 십일조 폐지론, 옹호론 등 몇 가지 견해를 검토 해보고자 한다.

셋째, 십일조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성경해석학적 원리들은 과연 옳은 것인가? 폐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십일조 옹호론의 입장에서 십일조의 성경적 원리를 천명코자 한다.

그리고 넷째, 한국교회가 십일조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일은 반성하여야 할 일이나 분명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실현이라는 교회사명이 현실적으로 십일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십일조 사용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에 대한 몇 가지 점을 한국교회에 제안코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구약성경에 나타난 십일조의 원리를 살펴보고 십일조의 현금의 성경적인 사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의 정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십일조 규정의 규범성을 개괄한다. 제 3장에서는 그 외 구약에 나타난 십일조 제도를 개괄한다. 제 4장에서는 십일조 폐지론과 옹호론을 상호 비교하고, 제5장에서는 십일조의 성경적 원리를 밝힘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한국교회의 십일조 사용에 대한 몇 가지 필자의 제안을 밝힘으로 본고를 끝맺고자 한다.

제 2 장 모세오경에 나타난 십일조

제 1 절 십일조의 규범적 성격

십일조는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규범성이 있다. 즉 구약의 의식으로 사용된 십일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신앙의 원리로서 제시된 “영원한 도덕법”과 같은 규범적 성격이 있다. 이런 규범적 성격은 안식일의 원리와 비슷하다. 안식일이 의식적인 성격이 있지만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워주신 영원한 법의 성격이 있는 것처럼, 십일조도 역시 창조 때부터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영원한 법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이런 규범적 성격으로 인해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창 14:20). 그리고 야곱의 십일조 약속도 있었던 것이다(창 28:22).³⁾ 이하 다음절부터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십일조 규정의 규범적 성격을 상론코자 한다. 모든 성경에 나타난 십일조 관련귀절의 규범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모세오경에 나타난 십일조 규정에 한정하고자 한다.

제 2 절 레위기 27:30-34의 규범성

(레 27: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 최순직, “성서적 연보론” (www.godislove.net), 2005.

1. 본문은 주동사가 나오지 않는 명사 문장으로서 직역하면 ‘그리고 모든 십분 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이다.

본문 역시 26절의 우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인 십일조는 결코 서원을 위해 다시 사용되지 못하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원어 성경에는 한글개역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은 ‘בָּל’이 문장 맨 처음 나와 ‘모든’ 십일조는 예외 없이 여호와의 것임을 말해 준다. 이런 사실은 십일조 규정이 십일조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따라서 소득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규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⁴⁾ 물론 이 규정은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진 규범이나 십일조의 정신 즉 십일조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규범성은 오늘날도 살아 숨 쉬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모든 소유, 곧 곡물이나 나무의 열매나 육축에서 그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산물을 얻게 되었든지, 그것을 열로 분할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쳐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토지의 주인이요 그 모든 소산을 주신 분이며 자기들은 단지 소작인이고, 그분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 풍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와 같은 은혜를 계속 내려 주시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십일조에 관한 계명은 도덕적인 것이요 영속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다.⁵⁾

(레27: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 동물의 경우에 십일조에 해당되는 동물을 가려낼 때 바로 이러한 목자의

4) 한성천 외 편, 레위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9 (서울: 제자원, 2002), 643.

5) Mathew Henry, 레위기, 매튜헨리주석시리즈 6,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370.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서, 특별한 구분 없이 그 중 열 번째로 지나가는 것마다 구별하여 십일조로 드리도록 하였다(렘 33:13;겔 20:37). 이처럼 하나님께 십일조로 바치는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시하신 것은 3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인간적인 욕심으로 추려내는 사악한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십일조의 규범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⁶⁾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반드시 찾으시며 당신의 것이 인간에 의해 함부로 바뀌어지는 것을 철저히 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30-33절은 십일조 관련 규례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십일조는 사람이 구별하여 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십일조를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이며, 그래서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다.⁷⁾ 십일조 등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것으로 명하셨던 것이다.⁸⁾

5. Keil & Delitsch에 의하면 본 절 이전에 선포된 율법들 가운데서는 십일조란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번제, 소제, 및 화목제들처럼 십일조는 당연히 오랜 과거로부터 산물의 십분 일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예배의 본질적 부분을 이루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그가 타국에 있을 때 주신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한 십일조로 드릴 것이라고 서원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그의 노획물 중 십분 일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였다.⁹⁾ 풀핏성경주석 또한 본절을

6) 한성천 외 편, *레위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9 (서울: 제자원, 2002), 644.

7) 한성천 외 편, *민수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1 (서울: 제자원, 2002), 381.

8) Martin Noth, *레위기,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254.

9) C. F. Keil and F. Delitzsch, *레위기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김

통하여 십일조 헌납에 대한 관습은 모세가 규정한 것이 아니며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단지 그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어졌을 뿐이라고 한다.¹⁰⁾

6. 캘빈도 레 27:30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였으니 이 구절에서 모세는 십일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목전에 계신 것처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부과된 십일조를 성실히 헌납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지은 자들이란 것을 염숙히 단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신 26:12)라고 한다. 그는 십일조에 대한 내용은 십계명중 제2계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

7. 이런 뜻에서 모든 소산의 십분의 일은 여호와께 속한 성물이란 점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한다는 규범성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하겠다. 십계명의 형식적 준수는 신약시대에 와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십계명의 정신은 도덕적 규범으로 신약성도들을 규율하고 있음과 같이 말이다.

제 3 절 민18:21-32의 규범성

(민 18:21)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 본문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지난 단락

득중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2), 266.

10) W. L. Alexander, *레위기. The Pulpit Commentary*. 풀핏주석번역위원회 (서울: 보문출판사, 1993), 301.

11) 김문기, *십일조* (www.godislove.net), 2002.

(8-20절)에 이어 제사장을 도와 역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분깃인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른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십일조를 바치게 하여 그것으로 레위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러한 십일조에 대한 규례는 이미 앞에서도 주어진 바 있으나, 거기에는 단지 바치라는 규례(레 27:30-33)만 주어졌을 뿐으로 이처럼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어 음식으로 삼게 하신 것은 이곳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¹²⁾ 한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십일조 가운데 다시 십분의 일을 떼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려야 했는데 이는 제사장들의 분깃이 되었다. 이러한 십일조 제도는 그것을 바치는 자나 받은 자 모두 그들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는 것이다(학2:8, 시50:12).

2. 칼빈에 의하면 이 귀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백성에게 십일조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명하기 이전에 이미 족장시대에 하나님께 십일조를 서약하고 드리는 관습의 추정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 이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사적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율법에 의한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는 사실은 레위 자신도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창14:20, 18:22, 히7:11).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

12) 한성천 외 편, 민수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1 (서울: 제자원, 2002), 380.

13) John. Calvin, 민수기, 성경주석,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243.

이라 하였노라

3. ‘거제로’라고 번역되어진 ‘תְּמֻוָּת’의 원형 ‘הַמּוֹרָת’의 문자적인 뜻은 받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의 ‘거제’(18:19,24,26) 또는 ‘거제물’(18:27;느 13:5)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좀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성물’(레 22:12;5:9), 또는 ‘예물’(레 7:14;겔 45:1)이라는 뜻도 갖는다. 본문에서는 ‘거제’라고 번역한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과는 달리 후자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4.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는 모든 곡식과 나무의 열매와 가축들의 십분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레 27:30). 따라서 그들은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은 레위인들의 뜻이 되었다. 생계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던 레위인들은 십일조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한편 본문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다른 지파로부터 십일조를 받은 레위인들 역시 자신들이 소유하게 되는 십일조의 십분의 일을 다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했다.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드린 그들의 십일조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보수로서 제사장들에게 돌려졌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 중에서 십 분의 구는 레위인들의 분것이 되었고 그중의 십분의 일은 제사장들의 뜻이 된 것이다.¹⁴⁾

5. 개역 한글판 성경은 ‘역시(also)’를 뜻하는 ‘גַּם’의 원형 ‘גַּם’에 대한 번역을 생략했다. 그러나 원어성경은 레위인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여호

14) 한성천 외 편, 민수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1 (서울: 제자원, 2002), 382.

와 함께 그들의 수입에 대한 십일조를 거제로, 즉 예물로 드려야 할 것을 ‘역시’라는 뜻의 ‘גַּ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이처럼 여호와께 십일조를 드리는 데는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차별이 없었으며, 레위인의 십일조 수입 역시 곡식이나 포도즙과 같은 소출물로 여겨졌다. 땅의 모든 소출물의 십분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었으므로 레위인도 반드시 십일조를 드려야 했던 것이다.¹⁵⁾

제 4 절 신명기 14:22-27, 신명기 14:28-29의 규범

성

(신 14:22)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1. 본문은 ‘~의 열 번째 것(혹은 십분의 일)을 드리다’란 뜻이 있는 ‘עַשְׂרֵנָה’ 동사의 Piel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이 나란히 나온 형태이다. 히브리어에서 이처럼 부정사 절대형과 동일한 어근의 단어가 나란히 배열되면 이는 그 동사의 의미가 매우 강조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혹은 틀림없이) ~의 열 번째 것(혹은 십분의 일)을 드려야 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십일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עַשְׂרֵנָה’ 동사의 어원은 우가릿(Ugarit)어와 아랍어와도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이 ‘עַשְׂרֵנָה’는 ‘예물’이란 뜻을 내포한다. 즉 들에서 난 것들을 비롯하여 우양의 새끼들을 십일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 가지의 성격을 지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십일조는 땅의 주인이며 모든

15) 한성천 외 편, 민수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1 (서울: 제자원, 2002), 388.

생산물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행동을 대변하는 예물인 것이다.

이로 보건대 십일조는 인간의 편의에 의해 드리고 싶을 때 드리거나 모았다가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빠짐없이 바쳐야 한다.¹⁶⁾

2. 데이빗 페인에 의하면 토지소산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한다. 실제로 십일조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린다는 규범성이 있으며 십일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을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¹⁷⁾

3. 장일선 교수는 십일조는 땅의 주인이며 추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행위이며 하나님이 땅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⁸⁾

반즈 또한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실제주인이요 따라서 그 땅의 사용자는 하나님께 공물은 바쳐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⁹⁾

4. ‘소산’에 해당하는 말은 ‘오다’는 뜻의 ‘אֹוֹב’에서 파생한 ‘חָאֹוֹבָת’의 연계형 인 ‘토지’에 해당하는 말은 ‘חָדְשָׁה’이다. 원어 성경에 충실히 본문을 직역하면 ‘그 밭이 내어 놓는 네 씨뿌림의 모든 소산’이다. 그리고 이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먼저 ‘모든’이란 뜻의 ‘כָל’이 ‘소산’으로 번역된 ‘חָאֹוֹבָת’ 앞에 놓여 있다. 이처럼 원어 성경은 ‘모든 소산’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십일조로 드려야 하는 것과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산은 반드시 십일조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²⁰⁾

16) 한성천 외 편,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4 (서울: 제자원, 2002), 169.

17) D. F. Payne, *구약주석*, 박양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2), 124.

18) 장일선, *A Commentary on Deuteronomy*, 대한기독교서회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70.

19) J. Ridderbos, *신명기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최종태 역(서울: 크리스챤서적, 1994), 247.

20) 한성천 외 편,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4 (서울: 제자원, 2002), 170.

(신 14:23)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5. ‘십일조’로 번역된 ‘**שְׁנִינָה**’는 명사 ‘**שְׁנִינָה**’의 연계형으로서 ‘십분의 일’이라는 의미와 함께 ‘예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이다. 이 십일조는 본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레위인의 생활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었다(민 18:21). 그러나 이러한 십일조 규례와는 달리 본문에서는 십일조를 가져온 자가 그 예물을 성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본문에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바친 십일조 예물을 먹으며 추수의 기쁨을 나누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문의 십일조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하여 바치는 십일조와 분명히 구별되는 십일조임을 보여준다. 즉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십일조는 소득에서 1/10을 바치는 제 1십일조를 가리키며, 본문에 나오는 십일조는 제 1십일조를 바친 후 남은 9/10의 1/10을 성소로 가져가서 잔치를 베푸는 데 사용하는 제 2십일조, 즉 ‘축제 십일조(Festival Tithe)’를 말한다.²¹⁾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신앙의 고백이다(대상29:14).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 2십일조를 성소의 축제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십일조까지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하게 돌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려 한 것이다. 더욱이 그 당시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은 특별히 추수 때와 관련해서 많은 예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소에서만 그 추수의 기쁨을 즐기게 하심으로써 모든 추수의 즐거움이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26절; 12:7).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의 주 목적은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

21) 한성천 외 편,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4 (서울: 제자원, 2002), 172.

를 항상 배우는 것이었다고 Christensen은 강조한다.²²⁾

(신 14:28)

매 삼년 끝에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6. 본 절과 제 29절은 제 23절에서 설명한 바 있는 제 2십일조에 대한 규정 가운데 하나이다. 성경은 기업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하여 각 성읍에서 소득의 1/10을 바치는 제 1십일조와 더불어 나머지 9/10의 1/10을 다시 제 2십일조로 바칠 것을 명령한다.²³⁾ 제 2십일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제 23절로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축제 십일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일조를 가지고 중앙 성소에 나아가서 축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 절과 다음 절에서 언급되는 것으로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 3년과 제 6년에 십일조를 중앙 성소로 가지고 가지 않고 각기 자기가 속한 성읍에서 저축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²⁴⁾

한편 본문에서 ‘내어’로 번역된 ‘אִצְרָה’는 ‘밖으로 나가다’는 뜻이 있는 ‘אִצְרָה’ 동사의 사역 능동형(Hiphil) 2인칭 미완료형으로서 ‘너는 밖으로 가지고 나을 것 이라’는 명령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여기서 ‘밖으로’라는 말은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라는 말이다.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은 ‘다’에 해당하는 ‘לְ’ 이란 단어를 마치 ‘אִצְרָה’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번역해 ‘십일조를 결코 숨기지 말고 다 내어 놓으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오히려 ‘לְ’을 ‘십일조’로 번역된 ‘דְּשֻׁעָם’를 꾸미는 말로 사용하여 십일조를 강조하는 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어 성경에서는 ‘제 2십일조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내어 놓으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D. L. Christensen, *신명기*, 1-11, WBC성경주석 6A, 정일오 역 (서울: 솔로몬, 2003), 601.

23) W. L. Alexander, *신명기*, The Pulpit Commentary, 풀핏주석번역위원회 (서울: 보문출판사, 1993), 242.

24) S. R. Driver, *Deuteronomy*,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배영철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47.

7. 한편 ‘저축하여’로 번역된 ‘הַנְחָה’는 ‘הַנְחָה’ 동사의 사역 능동형(Hiphil) 2인칭으로서 ‘저장한다’란 뜻을 가진다.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삼 년 끝에 드리는 십일조는 23절이 말하는 십일조와는 달리 중앙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곳간에 쌓아 둔다. 물론 이때 드리는 십일조는 또 다른 특별한 십일조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중앙 성소로 가져가서 여호와 앞에서 즐기며 축제하는 데 사용되는 제 2의 십일조이다. 이처럼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째를 제외하고는 매년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축제 용도로 제 2십일조를 사용하였지만, 매 삼 년째에는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마을에 십일조를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²⁵⁾

이로 보건대 구약이 말하는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 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동시에 가난한 자도 돌아볼 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다(사 1:13-17;호 6:6;마 25:40;요일 4:20).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어느 개인의 책임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책임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십일조를 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내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라 할 것이다. 교회가 이와 같은 구제 사업을 게을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독점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되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춰야 하는 등불로서의 사명을 외면한 직무유기가 된다.

25) 한성천 외 편,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4 (서울: 제자원, 2002), 179.

(신 14:29)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8. ‘그리하면’으로 번역된 ‘**יעמָל**’은 ‘의도’, ‘목적’을 이끄는 명사 ‘**יעמָם**’에 전치사 ‘**ל**’가 붙은 형태로서 ‘~할 의도로’, ‘~을 목적으로 하여’란 뜻을 가진다. 또한 ‘**יעמָל**’은 결과적 용법으로도 사용되는바 한글 개역 성경은 ‘**יעמָל**’을 결과적인 의미로 번역했다. 그래서 십일조를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공하면 하나님께서 본문의 내용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다. 한글 개역 성경이 ‘그리하면’이란 번역은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는 뉘앙스를 전달해 준다.²⁶⁾

그렇듯 ‘**יעמָל**’은 결과를 나타내기보다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십일조를 내어 놓는 자에게 더욱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시하시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7:13; 15:18; 28:8; 30:16).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너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축복할 수 있기 위해’라고 할 수 있다. 이 번역에 따르면 십일조를 모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그 동기가 되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²⁷⁾

한편 본문이 말하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막연한 축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즉 ‘너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일조를 내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즉 십일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26) 한성천 외 편,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4 (서울: 제자원, 2002), 180.

27) 한성천 외 편,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4 (서울: 제자원, 2002), 181.

9.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소득 중 10분의 1을 기업이 없는 레 위인들에게 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여는데 이것을 소위 '제 1십일조'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래위기 27:30-34와 민수기 18:21-32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1십일조를 바치고 남은 소득(9/10) 중 다시 10분의 1을 떼어 감사 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위 '제 2십일조'이다. 그런데 제 2십일조 가운데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째에 거둔 것에 대해서는 감사 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구제 사업에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제 2십일조도 용도에 따라 둘로 구분된다. 때문에 제 2십일조 중 매 3년과 6년의 십일조를 '제 3십일조'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십일조 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규범적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하겠다. 십일조 제도는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도 그의 규범적 성격으로 인하여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²⁸⁾

10. 한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현물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물론 신약 교회 안에서도 세상 끝날 까지 요청된다.

즉 강제적, 문자적 규약 규범으로서의 십일조 규례는 종결되었으나 그 기본 정신을 더욱 확장한 선한 제도 내지 규범적 전통으로서의 십일조는 현대에 더욱 크게 요청되고 있는 바이다.

또한 십일조 등의 현물 행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인 동시에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결정적 통로이기도 하다. 잘 알다시피 저 유명한 말 3:7-10 말씀은 십일조를 매개로 하나님의 축복을 시험하여 보라는 놀라운 도전까지 우리 앞에 던지고 있다. 십일조는 성도 각자의 신앙 결단과 고백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서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적, 강제적 규정으로

28) 한성천 외 편,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 vol. 14 (서울: 제자원, 2002), 185.

서의 십일조가 아니라 신약 교회의 현금 행위를 위한 선한 기준이요 전통이요 규범적 제도로서의 십일조는 여전히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하겠다.

제 3 장 그 외 구약성경에 나타난 십일조

1.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십일조(창 14:17-20)

구약성서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십일조는 창세기 14:17-20에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뺑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벌어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말하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일”이라는 문장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²⁹⁾ 또 하나는 십일조의 성격 규정이다. 19절에는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복을 벌였고, 20절에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찌로다”라는 멜기세덱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십일조를 드린 것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릴 때는 아직 모세의 율법이 시행되지

29) 아브라함의 십일조에 관해서 임태수는 “아브라함의 십일조의 특징은 자기가 기른 농산물이나 가축의 십일조가 아닌, 노획물의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이다”라고 한다 (임태수, “십일조와 제물의 성서적 목회적 이해”, 구약성서와 민족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351.). 이것은 히브리서 7:4의 말씀을 통해 증명된다.

않은 때이다. 또 멜기세덱이 노략물의 10분의 1을 아브람에게 “과세”했다는 암시도 전혀 없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세무요원도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십일조를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의 형태가 십일조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더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 감사의 행위이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현금 방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태도를 예시해주고 있다.³⁰⁾

2. 야곱의 십일조 약속(창 28:18-22)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 광야에서 꿈을 꾼 다음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의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십일조를 바친 구체적인 사실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3.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헌물 제사하는 성경상 최초의 기록이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 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창4:4-5)고 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가인의 재물이 배척된 이유를 십일조와 결부시키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제 3세기의 터툴리안(Tertullianus, 160-220)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물리치신 이유는 가인이 그 헌물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않고 바친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성경 히 11:4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성경을 보면 예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 이것을 보면 가인이 정죄된 것은 예물의 정량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

30) R. T. Kendall, *십일조*, 송성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58.

다는 것은 순종과 상관성을 가지며 순종이라는 것은 이미 하달된 명령이 건재해 있어야만 의의가 있는 것이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는 것이라 성경이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두 사람에게 그들이 바쳐야 할 헌물의 정량이 지시되지 않았다면 또는 다소간에 각자의 소원대로 바칠 자유가 허용되었다면 가인에게서 헌물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성경에는 가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규정해 놓았으며 그러므로 하나님께 분명히 그들에게 헌물의 종류와 일정량을 엄밀히 명령하셨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히 11:4). 테이어(Thayer)의 헬라어 사전에 의하면 “더 나은”은 질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또한 양적으로도 우수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한다.

4. 말라기애 나타난 십일조(말 3:6-12)

한국의 개신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일조에 관한 설교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성경 본문이다. 여기에서 십일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8절).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까닭은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인간은 단지 이것을 위탁받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간은 나눔의 최소화를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은 물질소유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훈련의 기본단계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 인간이 물질의 종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것이다. 하나님은 십일조의 윤용을 통하여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소득의 재분배를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십일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위적으로 파괴한 것이다.³¹⁾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를 경고하고 바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주가 무섭기 때문에 바치거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친다면 이것은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발행되었던 사면부(indulgentia)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 구약의 십일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현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세계의 지배는 받지 말아야 함을 암시한 것이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십일조를 받게 되지만 궁극적인 바치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십일조를 통해서 재산이 있는 자는 그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최소 단위를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는 위정자들이 세금으로 거두어가는 십 분의 일세와는 성격이 달랐다(참조 삼상 8:15-17).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십일조를 내게 된 것도 이들에게는 토지분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하나님이 이들의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³²⁾

말라기와 성서의 다른 곳에 근거해 볼때 십일조 생활은 권장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단지 우리가 전달받은 유대법의 잔재에 불과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성서에서 율법의 목적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에서의 언약계명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보기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모든 산물의 십일조를 그분께 드림으로써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수많은 세대에 걸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찬 마음으로부터 쏟아 부었던 자신들의 돈과 시간과 재능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교제 안에서 있었던 모든 한계를 넘어서 풍성하게 자신들에게 돌아왔음을 알고 있다.³³⁾

31) 김문기, 십일조 (www.godislove.net), 2002.

32) 김문기, 십일조 (www.godislove.net), 2002.

33) E. Achtemeier, 말라기,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79.

제 4 장 십일조 폐지론과 옹호론의 비교

제 1 절 십일조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

1. 십일조는 강제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

이 주장에 의하면 구약의 십일조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이었으나,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일조를 교리화하거나 제도화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예수께서 십일조 습관의 유용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⁴⁾

2. 십일조는 신약시대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 (십일조 폐지론):

이 주장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종교적 제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종교적 제도들은 폐기되었으며 기독교인들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³⁵⁾ 예수로 인해서 구약율법이 폐기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십일조법이 고대의 농업사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산업사회의 우리에게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³⁶⁾

34) R. T. Kendall, *십일조*, 송성진(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81.

35) 조누가, *십일조를 넘어서* (서울: 베틀북, 2000), 112.

3. 십일조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들(십일조 옹호론):

십일조는 구약에서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십일조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보수적 목사들은 이러한 주장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구약에서의 십일조 관행의 유효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예수가 구약시대의 의식주의를 거부했을 뿐, 십일조 부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십일조법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된다. 신명기의 십일조가 구약의 모든 다른 십일조법의 근본이었고 신명기법이 구속사적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일조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³⁷⁾

제 2 절 십일조 폐지론에 대한 반박

십일조 폐지론자들은 율법과 복음은 근본적으로 상반된 관계에 있으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도덕률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한다.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율법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봉헌관을 가진 자들은 완전 자율적인 봉헌관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완전 복음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따르기보다는 자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값싼 인간의 동정물로 폭락시키고, 교역자를 상군으로 전락시키며, 거룩한 교회를 인간들의 단체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그들은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율법의 도덕법적 정신까지 상실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주님은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것이다. 특히 모세오경의 십일조 규정은 영원한 도덕법과 같

36) 성기문, 십일조 논쟁 (www.godislove.net) 2005.

37) 최순직, 성서적 연보론 (www.godislove.net) 2005.

은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 어디에서도 십일조에 대한 해석을 구약과 달리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십일조의 의미를 강화하여 설명하셨다(마 23:23). 무엇보다 십일조는 모세오경 이전에도 지켜진 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³⁸⁾

38) 김희정, “구약성경에 나타난 십일조에 관한 연구” (www.c3tv.com), 2004.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 필자는 십일조 규정의 규범적 성격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성경에서 추론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십일조는 규범적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다.³⁹⁾ 레 27:30에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십일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말씀이다. 말 3:10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하였으니 이는(레 23:16-18, 민 28:26-31, 잠 3:9-10) 거룩한 예물로 인해 하나님 섬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둘째 십일조는 재물의 참된 소유주를 알려 주는 계시의 원리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요 소유주이심을 알려주는 계시행위가 십일조 명령이다. 창 1:1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였다(시 24:1, 역대상 29:1-14, 요 1:3). 학 2:8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라고 하였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따라서 소득을 가진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규범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재물의 창조주요 소유주인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일조 명령임을 말씀하였다.

셋째 십일조는 성민의 삶의 표식이다. 그것은 하나님 경외를 물질적으로 나타내는 가시적 행위다. 잠 3:9-10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춥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

39) 조두만, *Numbers & Deuteronomy* (서울: 성결대학교출판부, 2002), 266.

리라”하셨다. 할례는 몸의 성별이며, 안식일은 시간의 성별이고, 유월절은 영의 성별이지만 십일조는 물질의 성별이고, 유월절은 영의 성별이지만 십일조는 물질의 성별이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사랑과 감사의 표식이다.

넷째 십일조는 청지기 의식과 사명의 표식이다. 십일조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물질을 위탁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준다. 십일조는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모든 물질을 위탁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고백적 표식이다(출 23:19, 시 96:8). 그리고 주인께 그 마지막을 결산한다는 표식이다(마 25:13-30, 롬 14:12, 갈 6:7).

다섯째 십일조는 축복계시의 원리다. 영적인 축복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이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였다(고후 9:7). 또한 그것은 그가 십일조의 신명(神命)에 순종하는 축복이다.⁴⁰⁾ 물질적 축복이 온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말 3:10). ‘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였다(말 3:10).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채워주시는 축복’이라고 하였다(말 3:10). 모든 재앙에서 보호받는 복이라고 하였다(말 3:11).

40) J. P. Lange, *The Books of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랑계주석 (서울: 로고스문화사, 1999), 373.

제 6 장 후기

구약의 십일조 사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바에 의하면 첫째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일원이라는 궁지와 기쁨을 갖게 하는데 사용되어졌다. 십일조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에 사용되어졌다. 둘째는 십일조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성전봉사자들인 레위인들을 위하여 생계를 보장해 주는데 쓰였다. 레위인들이 뗀 십일조는 제사장의 뷔이 되었다. 이처럼 십일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다. 종합해 볼 때에 십일조는 공동체의 친교, 교육, 구제,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었다. 현대에서도 이런 성서적 근거의 바탕으로 십일조가 올바르게 분배 사용되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레위인들은 십일조를 받아서 일부는 생계의 수단으로 일부는 하나님의 사업 즉 성막의 건축 및 치장, 성전의 수리에 사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각종 사례비를 부의 축적의 기회로 삼는 일부 교역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십일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분배해야 하느냐 하는데 있다.

십일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십일조를 바쳐야 하는가와 온전한 십일조를 바친다고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교회의 회계는 투명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이 낸 현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단 한 푼까지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를 해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신자들이 현금을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회는 십일조를 바치라고 신자들에게 가르치지만 말고 교회 스스로 십일조를 바쳐야 한다. 이 교회의 십일조는 교회 경상비에서 10분의 1을 자신의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닌 곳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십일조는 개교회가 연합한다든지 지방회 또는 노회별로 연합한다든지 아니면 종회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이 십일조를 종회적으로 모은다면 한국의 개신교회도 독일 루터교회들이 하는 사회봉사국(Diakoniewerk)을 설립하여 대대적인 사회 복지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셋째, 십일조와 현금은 신자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의 십분의 일 또는 그 이외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경제관은 물질이 그의 소유가 아니라 단지 위임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욱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독점이 아닌 공유이며 나눔이다. 십분의 일이라는 나눔의 훈련을 통하여 십분의 일 이상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할 복음이다.

41) 김문기, “십일조” (www.godislove.net), 2002.

참 고 문 헌

- 김문기. “십일조” (www.godislove.net). 2002.
- 김희정. “구약성경에 나타난 십일조에 관한 연구” (www.c3tv.com). 2004.
- 성기문. “십일조 논쟁” (www.godislove.net). 2005.
- 임태수. “십일조와 제물의 성서적 목회적 이해”. 구약성서와 민중.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장일선. *A Commentary on Deuteronomy*. 대한기독교서회100주년기념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조누가. 십일조를 넘어서. 서울: 베틀북, 2002.
- 조두만. *Numbers & Deuteronomy*. 서울: 성결대학교 출판부, 2000.
- 최순직. “성서적 연보론” (www.godislove.net). 2005.
- Achtemeier, E. 말라기.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Alexander, W. L. 레위기. The Pulpit Commentary. 풀핏주석번역위원회. 서울: 보문출판사, 1993.
- ‘_____’, W. L. 신명기. The Pulpit Commentary. 풀핏주석번역위원회. 서울: 보문출판사, 1993.
- Calvin, John. 레위기. 성경주석.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 Christensen, D. L. 신명기 1-11. WBC성경주석 6A. 정일오역. 서울: 솔로몬, 2003.

- Driver, S. R. *Deuteronomy*. The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배영철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Henry, Mathew. *레위기*. 매튜헨리주석시리즈 34.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3.
- Keil, C. F. and F. Delitzsch, *레위기*.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김득중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Kendall, R. T. *십일조*. 송성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 Lange, J. P. *The Books of Haggai, Zechariah and Malachi*. 배영철 역. 서울: 로고스문화사, 1999.
- Noth, Martin. *레위기*.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 Payne, D. F. *구약주석*. 박양조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2.
- Ridderbos, J. *신명기*. The Old Testament Commentary. 최종태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4.
- 한성천 외 편, *레위기*. 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2.
- _____, *민수기*. 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2.
- _____, *신명기*. 옥스퍼드원어성경대전. 서울: 제자원, 2002.